

CONTENTS

한반도 동향

2021년 10월

I. 주요 정세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III.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실 및 논평

편집책임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작성 자 **김혜민**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양아 북한연구소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전문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소 연구원

김소연 평화연구소 연구원

권주현 북한연구소 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소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이 달의 주요 연구동향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입장과 안보 딜레마 [통일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 및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언급으로 남북대화 재개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북한은 3일 만에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발사함...

미국

Time for a Peace Decla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National Interest](#)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가 매우 절박해졌음을 알 수 있음...

중국

헤징 방법, 체제 압박과 2000년대 한국의 헤징전략의 효용 [동북아논단](#)

중국의 부상은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헤징(hedging)전략은 이미 여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선택이 되었음...

일본

19년 만에 ‘외화교환권’을 발행한 북한의 실상 [동양경제](#)

북한이 ‘돈표’라고 불리는 외화교환권을 발행...

러시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이론적 허상인가 정치적 현실인가? [Journal of International Analytics](#)

최근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임에도 이론적 구체화 수준이 떨어지는 ‘전략적 자율성’ 담론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기념연설을 하시었다 [노동신문](#)

10월 12일 노동신문 1~6면은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기념하여 11일 3대 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의 개막식과 김정은 총비서의 기념연설을 게재함...

I

주요 정세

10.1.(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축전 “적대세력 반중 책동에 중국 지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미국, 북한에 구체적인 유인책 제시해야”(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정 장관,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
백악관, “미국의 구체적 제안에 북한 반응없어... 북한과의 논의 준비되어 있다”(대변인 브리핑)

10.4.(월)

재단절 55일 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정부, “연락선 연결로 남북관계 복원 토대 마련... 조속 대화 기대”
미국 국무부, “남북협력 강력 지지”

10.12.(화)

통일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한 이종기준’ 연설 관련) 대화로 차이 해소하자”
미국 국무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국의 적대적 태도 문제’ 연설 관련) 미국은 적대 의도 없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하며, 전제조건 없이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10.14.(목)

미국 국무부, “(북미협상 재개 관련) 북한에 구체적 제안 했다. 북한의 접촉 기다릴 것”(대변인 브리핑)

10.18.(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워싱턴 D.C.)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종전선언 제안 계속 논의... 북한에 조건없는 만남 거듭 촉구”

10.19.(화)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NSC 상임위, “깊은 유감... 북한, 조속히 대화에 응해야”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추정”
미국, “북한 미사일, 즉각적 위협 아니지만 불안정 조성 규탄”
중국, “관련국, 자제 유지하고 대화해야”
유엔, “안보리 결의 지키고 외교노력 재개하라”

10.21.(목)

중국, “(한미 종전선언 논의에) 당사자로서 마땅한 역할할 것”(외교부 대변인실)
서 육 국방부 장관, “북한 SLBM, 요격 가능한 초보단계”(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10.22.(금)

라하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북한, 가능한 모든 핵 활동 진행... 핵시설 확장”(스팀슨센터 온라인세미나)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코로나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 검토해야”

10.23.(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북관계 매우 중시... 김정은과 함께 전략소통 강화 노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건국 72주년 축전에 답전

10.24.(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한국과 종전선언 포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협력 기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종전선언 관련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 이른 시일 내 추가협의”

10.27.(수)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한미, 대북조치 시기 및 조건 관점 다소 다를 수도”
설리번 보좌관,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고, 외교는 역지력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략적 핵심 계획과 신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

10.28.(목)

외교부, “(설리번 보좌관의 시각차 발언에 대해) 외교적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
(대변인 브리핑)

10.29.(금)

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통화 “종전선언 등 생산적 협의”

10.31.(토)

한미 외교장관 회담, “종전선언 등 진지한 협의”(로마)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분석과 전망

(박영자, 『Online Series』, CO-29, 통일연구원, 2021.10.6.)

- 9월 28~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음.
 - 8차 당대회 결정에 따른 1차 연도 성과도출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2021년 연말 상황 관리' 기조를 제시하고, 특히 시정연설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과업을 제시함
- 2021년 연말 북한의 대내 주요 행보로 연말 성과도출을 위한 국가기관 간부들의 정책 수행력과 지도력 독려, 원료·자재·동력·설비에 대한 각 기관의 자체적 보장 요구 강화, 연말 자연재해 대비 등 국토관리사업과 살림집 건설 사업에 인민군의 대거 투입,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전, 절약과 내핍 생활 강제가 전망됨.
 - 사상교양, 방역사업, 국가방위력, 법적 통제 강화는 지속될 것임.
-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 관련하여 시정연설의 의도와 방향을 짚어보고 정세를 전망해 보면, 연말 대내 정치의 성과도출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 필요, 한국의 군사기술 수준 탐색 및 대선(大選) 관련 정세 파악, 미국의 정치정세 전망과 국제관계 분석 및 대응능력 향상 행보, 북·중 밀착과 '대미 협상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가 전망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남북관계 개선에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연말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긴장 고조' 가능성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I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Id=1549854>

■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입장과 안보 딜레마

(이무철, 『Online Series』, CO-27, 통일연구원, 2021.10.1.)

-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 및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언급으로 남북대화 재개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북한은 3일 만에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발사함.

- 김여정의 담화 내용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북한의 국방 및 대미·대남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뿌리 깊은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음.
- 남북한이 계속 힘에 의한 ‘공포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한반도 전쟁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평화를 위한 안보 강화’보다는 ‘평화를 위한 평화적 수단의 강화’를 위한 방식 모색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I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Id=1549845>

■ 북한의 탈고립주의 선언과 남북미 협력모델의 재가동

(임수호, 『Issue Brief』, 제29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10.8.)

- 최근 북한이 대외 행보를 재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살펴보면, 국경봉쇄를 완화하여 무역을 재개하려는 의도, 그간의 대중국 경사 노선을 수정하여 한·미와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종전선언을 수용한 것에서 이러한 의도를 읽을 수 있음.
- 미국 역시 아프간 철수에 따른 국내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나면 대북 접근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북미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남북미 모델의 재가동을 촉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카드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대북특사도 고려할만할 것임.
 - 다만,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131&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 핵 교리 진화의 공통 경로와 최근 북한의 핵 확산 개념

(황일도, 『국가전략』, 제27권 제3호, 세종연구소, 2021. pp. 5~26.)

- 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선언과 계속되는 단거리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 전구 내에서의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음.
- 기존의 대미 응징억제 교리에 더해진 핵 교리 진화는 잠재적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해당 잠재적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세였던 핵무장 국가들이 예외 없이 택했던 거부억제-핵선제사용 교리의 공통적 패턴을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선행사례 국가들은 재래식 교전과 전술핵 교전 사이의 문턱(threshold)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한편, 전술핵 사용 이후에도 전략핵 응징보복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왔음.
 - 북한의 핵 확산 개념도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한미연합측의 억제 전략은 북측 확산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술핵과 전략핵 교전 단계가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양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음.

■ 김정은 시기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이기동, 『INSS 전략보고』, October 2021. No. 14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10.27.)

-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정상적 사회주의정치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당의 위상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왔음.
 - 이러한 조치는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 김정일 시기의 선군체제와 비교할 때, 북한군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됨.
-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 통제를 통해 군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인사적 통제를 통해 군 핵심엘리트들을 길들이고, 제도적 통제를 통해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제도화하고자 함.
 - 이러한 통제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임.
-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은 군대를 탈정치화하고 전문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가역성이 존재함.
 -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어 체제유지와 정권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경우, 군의 재정치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군이 재정치화할 경우 북한의 대외·대남 강경노선이 득세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lId=410156&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0.1.	남북 접경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재해재난협력을 위한 과제	나용우·이우태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IV.jsp?menul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ld=1549844
10.1.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한일, 북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기태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IV.jsp?menul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ld=1549846
10.4.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STRN_view.do?nttlId=410127&bbsId=STRN&page=1&searchCnd=0&searchWrd=
10.6.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의미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129&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10.12.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평가와 전망: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lId=410134&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10.12.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 비교 및 시사점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lId=410133&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10.12.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평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ifes/6578/subview.do?enc=Zm5jdDF8QEB8JTJGbWF0ZXJpYWwIMkZpZmVzJTJGMTYyOSUyRnZpZXcuZG8IM0ZwYWdlJTNEMSUyNmNOZ3JUeXBIJTNETclMjZzcmNoQ29sdW1uJTNEc2oIMjZzcmNoV29yZCUzRCUyNg%3D%3D
10.13.	북한의 통제강화 경제정책: 조직정치적 해석	황일도	외교안보연구소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List.do?ctgrySe=06&pageIndex=1
10.14.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양운철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board/1/egoread.php?bd=3&itm=&txt=&pg=1&seq=6135
10.15.	당창건 76주년 김정은 기념연설 분석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research/area/kp_view.do?nttlId=410140&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10.15.	북한의 에너지 난, 무엇이 문제인가?	김경술	EAI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839&board=kor_issuebriefing%27,%27kor_workingpaper%27,%27kor_special%27,%27kor_multimedia&keyword_option=&keyword=&more=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0.18.	김정은 시대 10년: 「국가지도기구」의 구성과 변화	김인태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142&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10.18.	김정은의 양면전략: 선남후미 전술	남성욱	EAI동아시아 연구원	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844&board=kor_issuebriefing%27,%27kor_workingpaper%27,%27kor_special%27,%27kor_multimedia&keyword_option=&keyword=&more=
10.18.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정책 주요 내용과 평가	변상정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141&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10.18.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정정불안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이수석·안제노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143&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10.20.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절반의) 기억	박주화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Id=1549879
10.22.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평가와 함의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736&depth=2&lang=kr
10.27.	김정은 시기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이기동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156&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09.30.	북한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 중국 경험과의 비교	이희옥, 신지선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3호, pp. 189-219.

2. 미국

■ Time for a Peace Decla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¹⁾

(Doug Bandow, *The National Interest*, 2021.10.25.)

-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가 매우 절박해졌음을 알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해왔음.
-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적대적인 의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북아 역내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 미사일 개발 등 최근 북한이 전 세계에 보인 건재한 군사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더 큰 양보를 바라고 있음.
 -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에 따르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북한의 경우에 전혀 모순적이지 않음.
 - 북한의 목표는 미국의 제재 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의 보수 대통령 당선을 보장하는 것임.
-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북한의 진전을 동결하기 위한 전 세계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임.
 -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절실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음.
- 한국은 종전선언이 구속력이 없고 상징적일 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봄.
 - 그러나 북한이 회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과정으로써의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훨씬 더 많은 인구, 발전된 경제, 엄청난 기술적 우위, 그리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 과거 분쟁의 공식적인 법적 지위가 아닌 상황의 변화는 미국의 지속적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낳음.

1) 원문에는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의미상 ‘종전선언’으로 번역함.

- 종전선언은 종전의 정식 조약을 포함해야 하고, 대화의 유인책이 되어야 함.
 -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장기화 될 것이므로, 한미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종전의 의미와 이에 수반될 위험을 관리할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협의는 종전선언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한미 모두 서둘러야 함.
 -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미동맹 또한 굳건할 수 없을 것임.
 -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평화구상에의 물꼬를 튼 것처럼 보임. 한미는 신속히 그에 응답해야 함.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time-peace-declaration-korean-peninsula-195516>

■ Why North Korea Unleashed a Flurry of Missile Tests (Bruce Klingner, 1945, 2021.10.01.)

- 북한은 추적하기 어렵고 방어하기 힘든 이동식 미사일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계속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있음.
 - 지난 9월 북한은 새로운 공격형 미사일과 새로운 열차 기반 발사 체계, 더 빠른 미사일 연료 공급 체계를 개발했다고 주장함.
 - 이러한 새로운 발사 및 연료 공급 체계 개발은 연합군의 선제 및 보복 공격에 대한 북한 미사일의 생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은 이를 대비한 충분한 공격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낮게 비행할 수 있으며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피하기 위한 기동성이 있으며 궤적을 탐지하기 어려움.
 - 순항미사일은 모든 방향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360도로 감시가 불가능한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방어가 어려움.
- 북한의 최근 미사일 개발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고 압도하기 위해 북한이 다양한 범위의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북한은 최근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작업을 종료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여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추가 생산 능력을 강화함.
-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이나 남한의 새 정부 출범 첫해에 역사적으로 했던 대규모 도발을 자제해 왔으나, 향후 새로운 화성-16형 ICBM 혹은 ‘북극성-4형’ 및 ‘북극성-5형’ SLBM을 시험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사건은 지역 내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게 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 미국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국은 포괄적 동맹 미사일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해야 함.
 - 또한 미국과 동맹국은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공격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원문 <https://www.19fortyfive.com/2021/10/why-north-korea-unleashed-a-flurry-of-missile-tests/>

■ Can U.S. And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lign On North Korea? (forbes.com)

(Scott A. Snyder, *Forbes*, 2021.10.13.)

- 미국과 한국의 대북 여론조사는 비핵화 협상과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음.
 -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여론은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임.
-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최근 실시한 북한에 대한 미국민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단을 대가로 한국의 평화협정을 지지했으며 응답자의 24%만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면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힘.
 - 지난 10년 동안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민들은 북한과의 외교와 경제제재를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는 반대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문을 열어두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다면 북한에게 추가로 양보하거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서명할 정치적 유인은 거의 없음을 시사함.
- 지난 7월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1’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국인의 거의 절반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 정상회담 재개를 지지했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와 상관 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것은 응답자의 20%에 불과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미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

※ 원문 <https://www.forbes.com/sites/scottasnyder/2021/10/13/can-us-and-south-korean-public-opinion-align-on-north-korea/?sh=d8d926f3c388>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0.04.	Assessing Fall 2021 Agricultural Conditions in North Korea	Joseph S. Bermudez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CSIS	https://www.csis.org/analysis/assessing-fall-2021-agricultural-conditions-north-korea
10.05.	Nuclear Negoti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mid Great-Power Competition	John Delury	NBR	https://www.nbr.org/publication/nuclear-negotiations-on-the-korean-peninsula-amid-great-power-competition/
10.06.	Inter-Korean Hotline Re-Opens, But Conflicts Remain	Trevor Filseth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inter-korean-hotline-re-opens-conflicts-remain-194955
10.08.	Working toward Responsible Competition with China	Patricia M. KimFriday	The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1/10/08/working-toward-responsible-competition-with-china/
10.12.	Unpacking Claims of Secret North Korean Intelligence Operations	Jason Bartlett	<i>The Diplomat</i>	https://thediplomat.com/2021/10/unpacking-claims-of-secret-north-korean-intelligence-operations/
10.14.	UN Warns of Growing Food Crisis in North Korea	Lexi Lonas	<i>The Hill</i>	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576749-un-warns-of-growing-food-crisis-in-north-korea
10.18.	North Korea Weighs In On "Squid Game"	Trevor Filseth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weighs-%E2%80%9Csquid-game%E2%80%9D-195161
10.18.	Stop Reassuring South Korea About the U.S. Nuclear Umbrella	Doug Bandow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stop-reassuring-south-korea-about-us-nuclear-umbrella-195159
10.18.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Trusted Shield and Treasured Sword	Bruce Klingner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asia/report/north-koreas-nuclear-doctrine-trusted-shield-and-treasured-sword
10.19.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Condemn North Korea's Latest Launch	Stephen Silver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reducing-role-us-nuclear-weapons-could-make-north-korea-happy-195182
10.19.	Reducing the Role of U.S. Nuclear Weapons Could Make North Korea Happy	Bruce Bennett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reducing-role-us-nuclear-weapons-could-make-north-korea-happy-195182
10.22.	North Korea's "New Typ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More Political Than Military Significance	Vann H. Van Diepen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1/10/north-koreas-new-type-submarine-launched-ballistic-missile-more-political-than-military-significance/

3. 중국

■ 헤징 방법, 체제 압박과 2000년대 한국의 헤징전략의 효용

(꾸자웨이·쑤창허, 동북아논단, 2021. No.06.)

(顾嘉伟·苏长和, 对冲路径、体系压力与 21世纪以来韩国的对冲战略效用, 东北亚论坛, 2021. No.06.)

- 중국의 부상은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헤징(hedging)전략은 이미 여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선택이 되었음.
 - 이 연구에서는 ‘헤징 방법’과 ‘체제의 구조적 압박’이라는 두 가지 변수 점검을 통해 2000년대 한국정부의 헤징전략의 효용성을 평가함으로써 이론의 틀을 초보적으로 검증하였음.
 - 이와 같은 헤징전략 효용이론은 복잡한 국제환경에서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헤징의 방법을 ‘전가형(转嫁)’과 ‘전환형(转化)’으로 구분
 - 전가형 헤징은 양자 관계를 통해 위험을 다른 행위자에 전가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다른 국가에게 돌리는 전략으로, 중소국가가 전략적 자율성을 갖기 힘들고 특정 영역에서는 위험을 헤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국과 주변국 간 충돌에 휘말릴 수도 있음.
 - 전환형 헤징은 다자 협력을 통해 위험을 통제 가능한 기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혼자 감당할 능력이 없는 위험을 국제 네트워크 하에서 공동 위험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헤징 방법과 체제 압박의 변수를 통해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헤징전략의 효용성을 검증

변수		역대정부	전략 효용
체제 압박	헤징방법		
약	전환형	노무현	강한 긍정 효용: 남북미 위기 해결, 북핵위기 완화
약	전가형	이명박	약한 부정 효용: 북핵위기 심화, 한중관계 악화, 천안함·연평도 사건
강	전가형	박근혜	강한 부정 효용: 북핵위기 지속, 한중관계 경색, 사드 위기
강	전환형	문재인	약한 긍정 효용: 사드위기 완화, 북핵위기 통제

- 복잡한 전략 상황에 직면하여 더욱 신중하게 헤징전략 조합을 선택하여 구사해야 함.
 - 헤징전략의 효용을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 중 체제 압박은 단기간 내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헤징방법이 헤징의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함.
 - 위험 전가적 헤징 사고에서 벗어나 이원적 대립으로 얽힌 헤징이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함.

- 지정학적 조건, 역사적 경험, 현실적 상황 등에 기초한 정책 선택이 요구됨. 한국은 단기간에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해 완전히 대등한 헤징 전략을 구사할 수는 없으므로 전략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 조합의 지속적 조정과 정책 수단의 활용이 필요함.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APJ&dbname=CAPJLAST&filename=DBYL20211026001&uniplatform=NZKPT&v=fgvSydHII49u5ANn3rmvNX72Vmx-wqPHK80oihColCT_AJbztj-KWceNBmrC04k

■ 미중관계의 복잡성을 바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왕판, 환구시보, 10.13.)

(王帆, 正视中美关系复杂性并积极应对, 环球时报, 10.13.)

- 최근 미중관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새로운 조짐 등장
 - 취리히에서 개최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석방과 미중 간 상시적인 대화를 약속했고, 류허 중국 부총리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양국 경제무역 협정 관련 화상통화 진행
 -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대만에서 비밀 훈련을 하거나 미국 중앙정보국이 '중국임무센터'를 신설해 중국 위협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가 있었음.
- 미중관계는 상호의존과 권력투쟁의 두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 미국은 권력투쟁 차원에서 대중국 압박정책을 펴면서도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중국과의 연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고 일방적인 흑백정책이 아닌 대결과 협력의 복합정책 구사
 - 이러한 이유로 최근 취리히 회담에서 중국은 미중관계를 '경쟁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
 - 상호의존과 권력투쟁의 두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
- 향후 미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고려해야 함.
 -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집단정치를 부추겨 특정 국가에 배타적인 제도를 촉구하거나 미국 기준의 경쟁규칙을 만들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으며, 국제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당한 방식은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미중관계의 다면성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단계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고, 미국 국내정치를 둘러싼 파동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므로 통제 불능의 위기 상황이나 전술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야 양국 관계의 동요를 방지하고 양국이 증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

- 첨단기술 경쟁이 무역정책 조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양국의 이성적 관리 필요
- 모두가 미중관계가 새로운 시너지를 찾기를 바라지만 양국의 장기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상호 윈윈하는 노력 외에도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9B8Ct2KeD>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021. No.6.	위협감지, 전략이익과 태평양 도서국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한적 억제 〈威胁感知, 战略利益与美国 在太平洋岛国对中国的有限硬制衡〉	량자루이 (梁甲瑞)	국제논단 (国际论坛)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APJ&dbname=CAPJLAST&filename=GJLT20211014001&uniplatform=NZKPT&v=EiauZHPn2h0YTOFLURVG--V14B_Ar8bCxAXLZY7uhdpS-MKmn45VxjqXQvWfy
2021. No.6.	바이든 정부의 “기술동맹” : 동인, 내용과 도전 〈拜登政府的“技术联盟” : 动因, 内容与挑战〉	링성리 (凌胜利) 뤄징위 (雒景瑜)	국제논단 (国际论坛)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APJ&dbname=CAPJLAST&filename=GJLT20211014000&uniplatform=NZKPT&v=EiauZHPn2gHLosZEZhKb1tr0LH5f7gJ063x2NWSneXWkAl8KiH59i6isvjm6-k
2021. No.5.	중국 두만강지역 “아이스실크로드” 건설 참여에 대한 탐구 〈中国图们江地区参与 “冰上丝绸之路”建设探析〉	천밍후이 (陈明辉)	동북아경제연구 (东北亚经济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DBYA202105007&uniplatform=NZKPT&v=5N0muZpg-jftprHgup0CQyGGqyIDUWopB2UazjiilzrAjmM-dlytVO3zY9AS2FTM
2021. No.5.	문재인 정부 대중국 정책의 입장 변화 분석 〈文在寅政府对华政策立场 动摇剖析〉	리진 (李军)	평화와발전 (和平与发展)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HPFZ202105007&uniplatform=NZKPT&v=zQRXC6JvGUW27hiqS4ljequ5SCBdcwD7CIYqYOLcy58vxBHgyB0_CpTK01sWxv9X
2021. No.5.	디지털 패권과 미국의 대중국 과학기술 억제에 대한 영향 〈数字霸权与美国对华科技 遏制的影晌〉	장쯔다 (姜志达) 추이위에 (崔越)	평화와발전 (和平与发展)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HPFZ202105002&uniplatform=NZKPT&v=zQRXC6JvGUUKB_tVIQqxHy2HiwKAj3e1ixOrUZPqhD09alvO8oRUwS_RHOXTNeTp

4. 일본

■ 19년 만에 '외화교환권'을 발행한 북한의 실상

(후쿠다 케이스케, 동양경제 ONLINE, 2021.10.3.)

(福田恵介, 「19年ぶりに「外貨交換券」を発行した北朝鮮の実状」, 2021.10.3.)

- 북한이 '돈표'라고 불리는 외화교환권을 발행
 - 북한 당국의 외화보유고가 매우 감소하였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경제가 악화된 것은 아닌가하는 추측이 커지고 있음.
 - 돈표의 액면가는 '5000원(북한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에서 '주체110년(2021년)'에 발행하였다고 표기되어있으며, 평양의 개선문 등이 그려져 있음.
- 북한은 1979년부터 20여년 간 돈표를 발행하였으며, 2002년 폐지된 것으로 알려짐.
 - 1990년도 이후 국가경제가 마비되고 사경제(장마당)가 확대되면서 돈표가 아닌 외화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어 돈표의 필요성 감소
 - 2015년 경제가 회복되면서 외화보다도 북한돈을 매개로한 거래가 활성화 되어, 외국인들에게도 거스름돈은 북한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음.
 - 2016년 시작된 경제제재,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국경 통제로 인하여 북한 경제가 악화
 - 2020년 10월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의 기관 SNS를 보면, 평양 상점에서 달러 및 선불카드를 받지 않고, 북한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게재
 - 현 상황에서 돈표의 발행은 외화부족과 경제상황의 악화가 심각하다는 증거
- 최근 북한 주민들을 접촉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돈표 발행을 부정한다고 함.
 - 아직 돈표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통제 강화기조를 보면, 주민들의 부정과는 달리 돈표 발행은 실제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됨.
- 이번 돈표 발행은 김정일 위원장의 화폐개혁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과 같이 돈표의 발행도 시장에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초래하는 결과로 끝날 수 있음.

※ 원문 <https://toyokeizai.net/articles/-/459662?page=3>

■ 한반도의 ‘애드혹(ad hoc) 미중협조’와 대만해협문제

(쿠라타 히데야,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21.10.28.)

(倉田秀也, 「朝鮮半島の「アド・ホックな米中協調」と台湾海峡問題」, 2021.10.28.)

-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2020년 6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분명하게 협조가 가능한 분야’로 북한 문제를 꼽았음.
-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대만해협 문제가 국내적 논쟁이 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60년대 미일공동성명에서부터 ‘한국의 안보’와 ‘대만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명기
 - 1975년 미키 총리와 포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는 ‘한반도의 안보’로 갱신되었으나, ‘대만의 안보’는 이후 갱신되지 않아 냉전시대의 문맥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
 -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진행된 미일 ‘2+2’ 회담에서도 대만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짐.
 - 그러나 한미관계에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의 ‘디커플링(de-coupling)’은 계속되었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를 대만과는 다른 고유의 국지적 문제로 인식하며 관여의 여지를 형성
 - 2016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밝혔으며, 한반도(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중대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제스처를 보임.
 - 2021년도 한미 ‘2+2’ 회담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 중국의 견제가 있었으나, 대만에서 무력충돌이 있을 시 주일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의 무력투입 가능성은 낮음.
-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평화 증진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미중 간의 대립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함.
 - 미국과 중국 역시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이란, 북한,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협조의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며, ‘애드혹(ad-hoc) 협조’ 자세를 보임.
 -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만 주목을 하다 보니, 대만문제는 미일관계에 ‘아웃소싱’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한국 정부는 중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기존 한미동맹을 강화한 외교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취할 수 있음.

※ 원문 <https://www.jiia.or.jp/column/china-fy2021-04.html>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0.11.	북한의 중거리미사일은 일본에의 으름장 〈北朝鮮の中距離ミサイルは 日本への恫喝〉	야부우치 마사키 (藪内正樹)	세계경제평론 IMPACT (世界經濟評論 IMPACT)	http://www.world-economic-re view.jp/impact/article2308.html
10.15.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속아 귀국하였으나 '잔혹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김정은을 고소 〈北朝鮮は「地上の楽園」と騙されて 帰国し「過酷な生活」を強いられた 被害者たちが金正恩を訴えた〉	Anna Carlson	Newsweek Japan	https://www.newsweekjapan.jp /stories/world/2021/10/post-9 7284_1.php
10.25.	기시다 정권 하에서의 한일관계와 한국대통령선거 〈岸田政権下での日韓関係と 韓国大統領選挙〉	키우치 타카히데 (木内登英)	Nomura Research Institute	https://www.nri.com/jp/knowl edge/blog/lst/2021/fis/kiuchi/ 1025

5. 러시아

■ ‘8월의 포성’이 아닌 ‘9월의 미사일들’(Не «августовские пушки», но «сентябрьские ракеты»)

(안드레이 란코프, Valdai Discussion Club, 2021.10.05.)

- 2021년 9월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모두에 의해 이전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미사일 발사들이 이뤄진 달이었음.
 - 우선, 북한은 9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탐지가 어렵고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으며, 9월 15일엔 자국의 발달한 철로 체계와 터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철도미사일체계를 실험함.
 -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목표로 했다기보단 자국에 더 유리한 조건에서의 대화 재개를 강요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러시아의 관점에서 더 중요하고 우려되는 소식은 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성공한 것임.
 - 한국은 9월 15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7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으며, SLBM의 등장은 한국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
 - 한국에 있어 SLBM은 일반 탄두를 사용할 경우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지만, 일부 핵무기 전문가들은 SLBM이 핵탄두와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효율적인 무기란 점을 지적함.
 - 즉, 한국의 자국산 SLBM 개발과 도입은 한국의 핵보유국화, 더 정확하게는 한국의 핵 프로그램 재개라는 오래된 논의로 이어지는 문제임.
- 이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경쟁은 북한이 아닌 한국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1970년대 초 주한미군 전면 철수 가능성이 대두되자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진지하게 착수한 바 있으며, 2004년엔 한국의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우라늄 농축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함.
 -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경제제재에 취약하고, 제재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이스라엘처럼 전체 인구가 공유하는 위협 인식이 부재한 한국이 공개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그럼에도 미래에 상황은 바뀔 수 있으며, SLBM 개발을 통해 3대 핵전력을 모두 보유한 이례적인 국가가 된 한국도 이미 변화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임.
- 한반도 내의 핵-미사일 경쟁은 이제 한국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

- 북한은 연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재가동해 고위력 열핵 탄두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국도 SLBM 실험에 그치지 않고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진행함.
-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원문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ne-avgustovskie-pushki-no-sentyabrskie-rakety/>

■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이론적 허상인가 정치적 현실인가?(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АВТОНОМ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ХИМЕРА ИЛИ ПОЛИТИЧЕСКАЯ РЕАЛЬНОСТ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알렉산드르 솔로비에프, *Journal of International Analytics*. 2021;12(2):49-73., 2021.10.07.)

- 최근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임에도 이론적 구체화 수준이 떨어지는 ‘전략적 자율성’ 담론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담론을 개념화하고, 이러한 담론의 기반이 되는 ‘중견국(middle power)’ 개념을 살펴본 뒤, 두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정치적 자주성에 관한 주장이 등장하고 발전하여 온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함.
-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아직 이론적 허상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이해는 현실주의자들이 활발하게 제시하는 ‘헤징(hedging)’ 개념과 유사하게 발전되어 옴.
 - 한국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북핵 문제로 역대 사태가 급격히 전개되던 2005년 3월 당시 이해찬 총리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이후 주로 정치인들의 연설에서 자율성, 주체(agency), 주권 등으로 표현되면서 역대 주요국들의 다양한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인식됨.
 - 북핵 문제의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데에 더해 미국과의 주기적인 불화, 일본과의 정기적 관계 경색, 중국의 성장이 한국 지도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자체적인 역량과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담론의 핵심을 차지함.
- 이론적 취약성에도 한국의 대내외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 담론은 서구에서 발전된 ‘중견국’ 개념을 ‘토착화’한 기반 위에서 형성된 것임.
 - ‘중견국성’의 의미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의 대외정책적 야망은 중견국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담론을 형성하며, 강대국 사이의 항시적 경쟁에서 평화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자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면서 현존 국제질서의 구체적인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로 규정하는 앤드류 카(Andrew Carr)의 정의에 부합함.

-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정책화된 이래 중견국 개념은 한국의 모든 정부가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담론이 되었으며, 현행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정책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미국과의 군사적-정치적 동맹은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과 중견국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19세기 말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적 행보는 지역주의와 국제주의, 그리고 강대국과의 동맹에 대한 의존과 자립성 추구 사이의 대립 양상을 반영하며 발전되어 왔는데,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근대의 뼈아픈 경험은 주권성이 한국의 정치적 담론과 국민 정서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만들었음.
 -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신생 민주국가인 한국이 공산주의 체제와 실존적으로 대립하고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되면서,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또한 핵심적인 담론으로 부상함.
 - 이러한 동맹으로 인해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위험이 증대되면서, 미국의 안전 보장 수준을 이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대두되었음.
 - 요컨대 한미 동맹의 발전은 한국의 이중적 정체성이 반영된 전략적 자율성 담론을 제한하는 동시에 추동하는 요인임.
-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담론은 개념화 정도가 불충분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이론적·실제적 차원에서 역동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높여줌.
 - 한국의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세계에서 더 주요한 역할에 대한 야심적인 선언으로 이해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미국과의 동맹에 기반한 정치적 자유로 인식하고 있음.

※ 원문 <https://www.interanalytics.org/jour/article/view/366/322>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0.01.	‘역제’의 기반시설: 아시아 내 미국의 ‘유연한 동맹들’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ДЕРЖИВАНИЯ: «ГИБКИЕ СОЮЗЫ» США В АЗИИ)	막심 수취코프 (Максим Сучков)	Russian Council of International Affairs	https://globalaffairs.ru/articles/infrastruktura-sderzhivaniya-ssha/
10.01.	북한이 '놀라운' 신형 미사일에 대해 말한다: 발사는 계속되고 있다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рассказала об «удивительной» новой ракете: запуски продолжаются)	안드레이 야슬라프스키 (Андрей Яшлавский)	모스크스키 콤소몰레츠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https://www.mk.ru/politics/2021/10/01/severnaya-koreya-rasskazala-ob-udivitelnoy-novoy-rakete-zapuski-prodolzhayutsya.html
10.04.	접촉 중: 북한은 왜 한국과의 연락선을 복원했는가 (В контакте: зачем КНДР восстановила линию связи с Югом)	나탈리아 포르타코바 (Наталья Портякова)	이즈베스티야 (Известия)	https://iz.ru/1230576/natalia-portiakova/v-kontakt-e-zachem-kndr-vosstanovila-liniyu-svazi-s-yugom
10.07.	김정은의 최신 위협 (Последняя угроза Ким Чен Ына)	바딤 코줄린 (Вадим Козюлин)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https://nvo.ng.ru/armament/2021-10-07/7_1161_missiles.html
10.07.	북한의 기적: 위기와 고립 속에서 살아남은 30년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чудо: 30 лет выживания в условиях кризиса и изоляции)	안드레이 란코프 (Андрей Ланьков)	Journal of International Analytics. 2021;12(2):31-48.	https://www.interanalytics.org/jour/article/view/323
10.20.	북한이 성공적인 잠수함발사 미사일 실험에 대해 발표해 (Пхеньян отчитался об успешном ракетном пуске с подлодки)	올레그 키리야노프 (Олег Кирьянов)	로시스카야 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2021/10/20/phenian-otchitalsia-ob-uspešnom-raketnom-puske-s-podlodki.html
10.20.	전문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의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해 (Ракетные запуски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сочли второстепенной проблемо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레나트 압둘린 (Ренат Абдуллин)	모스크스키 콤소몰레츠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https://www.mk.ru/politics/2021/10/20/raketnye-zapuski-so-storony-kndr-sochli-vtorostepennoy-problemoy-koreyskogo-poluostrova.html
10.21.	한국의 '나로' 우주기지에서 다단계 로켓이 발사돼 (В Южной Корее с космодрома "Наро" стартовала ракета-носитель)	올레그 키리야노프 (Олег Кирьянов)	로시스카야 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2021/10/21/v-iuzhnoj-koree-s-kosmodroma-naro-startovala-rocketa-nositel.html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10.1.~10.31.)

일자	대내	대남·대의
10.01.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시진핑 주석, 72주년 국경절
10.03.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천절 기념행사(단군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용일(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명철·김완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등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관련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담화(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조치들을 결코든 것은 유엔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
10.04.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과업 관철 독려’ 선전화들 창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남]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기는데서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
10.05.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황해남북도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협의회들에서 시·군량정사업에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며 밀, 보리파종면적을 늘이고 다음해 농사준비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 토의” 	
10.07.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지 요해(황해남도 신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건설장, 시멘트 공장, 식료 공장 등 방문 • [당창건 76주년 관련]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 	
10.08.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창건 76주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총중앙 노동자예술선전대공연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중앙노동자회관) -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 경축모임, 당 중앙위 부장 리두성, 평양시 당위원회 비서 홍철진 참가(여성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일] 납치문제 거론 관련 (외무성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문제는 완전히 끝난 문제임. 조일관계문제에서 기본은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비롯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임. (새로 취임한) 일본 수상은 조일관계문제와 관련한 언행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10.09.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창건 76주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이사장·회원들 8일 꽃다발 전달 	

일자	대내	대남·대외
10.10.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공개활동] 당 창건 76주년 기념강연회 (당 중앙위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원·박정천·리일환·정상학·오수용·태형철 (당 비서), 김재룡·오일정·김영철·허철만·박태덕·김형식·유진(당 부장), 권영진(총정치국장) 참석 • 함경남도 수해민들 새집들이 진행 	
10.11.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공개활동]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참석 및 기념연설(3대혁명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전람회는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 - △종합군악대 예식 △군전투원들의 격술시범 △ 낙하산병 강하 △전투비행사들의 기교비행 진행 	
10.12.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용접부문 과학기술발표회(~10/15, 조선과학 기술총련맹 주최, 화상회의) 	
10.14.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답전] 시리아 대통령·라오스인민혁명당 총비서의 ‘당 창건’ 76주년 축전(10.4·10.8)에 ‘사의 표명’ 답전 각각 발송
10.15.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평안북도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공정별로 알심있게 하여 적기에 수확” 언급 	
10.16.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대동강전기공장·평양326전선종합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기 위해 현존 생산공정들의 현대화와 능력확장에 주되는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강조 	
10.19.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과학원,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국방기술 고도화와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 보도 •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함경남북도 기간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공업) 김책제철연합기업소·청진제강소 △(기초화학제품)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 연합기업소·청진화학섬유공장 △(전력) 장진강 발전소 △(농업) 금야군 농사 실태 및 고원군 양정 사업 현대화 △(수해) 신흥군의 피해복구 현황 	
10.20.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 제8기 제1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화상) 	

일자	대내	대남·대외
10.21.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0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 •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 • 직업총동맹국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미]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역제력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되었음.”
10.22.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폐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전람회는 병기들의 실체를 장악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그 어떤 형태의 군사적 위협과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위의 군사 강국으로서의 국가의 자위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고 보도 •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21 개막 (~10/29,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 	
10.23.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 김정은 총비서의 ‘국경절’ 축전에 ‘북중 친선관계 약속’으로 화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중조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며 총비서동지와 함께 노력하여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친선 협조를 심화시켜 호상 적극 지지하도록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조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으로 추동할 용의가 있음.” • [대미] 박명호 외무성 부상 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은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난
10.26.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회의지도), 전현철·박정근(내각부총리) 등 참가 - 제8기 2·3차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3·4분기 인민경제 계획 수행정형 총화 -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여 올해 전투를 결속하기 위한 대책 토의 	
10.27.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일] ‘적기지 공격능력 검토’ 거론 관련 비난 (조선중앙통신 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전수방위>와 <선제타격능력> 보유는 양립될 수 없음.
10.29.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버섯재배기술경험 발표회 및 강습회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깊이 학습하자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0.5.)

- 10월 5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학습을 독려하는 사설을 게재함.
 - 사설은 시정연설은 사회주의 건설을 새 승리로 앞당길 수 있는 명확한 진로를 천명하였으며, 시련기를 도약기로 전환시키는 전진과 역동의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투쟁강령”이라고 주장
 - 제8차 당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뜻을 향한 전 인민적 투쟁에 무한한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정권기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더욱 가속화해나갈수 있게 한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시정연설이 가지는 력사적의의”가 있다고 언급
 -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은 시정연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높이 나아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고 주장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0.11.)

- 10월 11일 노동신문 1~3면은 10일에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진행된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을 사진과 함께 게재함.
 - 총비서는 당조직이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투쟁방침을 어떻게 접수·집행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현시기 철저히 견지해야 할 사업원칙과 사업기풍, 사업작풍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 전당적인 기념강연회를 조직”함.
 -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사체를 “강철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야 하며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
 -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당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들을 철저히 경계할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사상뿐 아니라 도덕품성에서도 최고인 혁명가가 되는 것이 당 중앙의 요구라고 주장

- 당 제8차대회가 설정한 5개년 계획기간에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여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함.

■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0.12.)**

- 10월 12일 노동신문 1~6면은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기념하여 11일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의 개막식과 김정은 총비서의 기념연설을 게재함.
 - 개막식에서는 종합군악대 예식, 인민군전투원의 격술시범, 낙하산병 강하, 전투 비행사들의 기교비행이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하여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등이 참석하였고, 공헌자에게 표창을 수여함.
 - 총비서는 개막식에서 전람회가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주장
 - 총비서는 남조선이 다방면적인 공격용 군사장비 현대화 시도에 전념하고 있으며, “위선적이고 강도적인 이중적태도”가 더 위험한데,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 권리까지 빼앗으려고 심지어 우리의 상용무기시험까지도 무력도발이라느니 위협이라느니,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느니 하는 딱지들을 잔뜩 붙여놓고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목소리를 솔선 선창”하고 있다고 비난
 - 그러나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들지만 앓는다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앓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이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발언
 -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며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며,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낡고 뒤떨어진 근심고민과 몽상적인 사명감을 벗어놓고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랄뿐”이라고 주장
 - 또한 “강력한 군사력보유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도든 주권국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하며,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포기는 아”니라고 피력

■ 10월의 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전반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자고 강조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0.13.)

- 10월 13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의 당창건 기념일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자는 사설을 게재함.
 - 사설은 총비서의 연설은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전반을 가일층 강화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광명한 승리로 추동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대강”이며 이를 실천강령으로 틀어쥐고 역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과 시정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
 -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견지해야 하는데,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고, 당중앙의 혁명사상에 대해 학습 열풍,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을 적극 탐구적용해야 한다고 피력
 - 특히 당책임일꾼이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건설, 당활동, 당사업 전반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위해 사명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 의학과과학기술의 발전이자 보건사업의 개선이며 전진 (노동신문, 2021.10.31.)

- 10월 31일 노동신문은 의학과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의학과과학기술을 보건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한 중요한 무기로 다잡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때 당의 보건정책이 가장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철될 수 있다고 설명
 - 현재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축성하는 사업, 의료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
 - 의과학 연구 부문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술 발전을 위하여 탐구의 열정을 다 바쳐야 하며, 의료봉사 사업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의료일꾼들도 자기 분야의 치료사업에 이바지하는 의학과과학기술 성과를 한 가지씩만 내놓아도 기술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독려

〈대남·대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10.3.)

- 10월 3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초음속미사일 실험발사 관련 비공개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한 조철수 외무성 국장의 담화를 게재함.
 - 조철수 국장은 화성-8형 시험발사가 “안전한 공해상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위해도 준 것이 없”고, 정당한 주권행사를 취급한 것은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란폭한 침해이며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며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고 비난
 - 유엔이 미국과 추종세력의 합동군사훈련과 공격용 무기실험은 함구무언하고 북한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조치를 결코 든 것은 “유엔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국권을 침해하려는데 대하여서는 설사 사소한것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강력한 국가적대응조치를 취해야”했다고 전함.
 - 또한 안보리가 강도적인 미국식 사고와 판단에 치중하여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드는 경우 후과가 어떠한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발언

■ 일본은 침략야욕을 채우려는 헛된 시도를 견어치워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21.10.13.)

- 10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일본이 해상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국방력 증강하고 10월 3일 스텔스전투기의 호위함 이착륙 실험을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함.
 - 논평은 이러한 일본의 해상국방력 증강은 “해외팽창야욕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침략전쟁준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무력증강책동의 명분으로 또다시 《주변위협》 설을 들고나오고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
 -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다는 일본의 명분은 “군비확장을 합리화하고 재침야망을 가리워보려는 교활한 술수”이고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수단이 아니라 선제공격적이며 침략적인 전쟁장비들을 갖추기 위한다” 있다고 비난
 - “일본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진범”이며, “침략야욕을 채우려고 남을 걸고드는 일본의 헛된 시도는 쓰디쓴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중앙통신, 2021.10.21.)**

- 10월 21일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의 신형 SLBM 시험 발사 관련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진행한 문답 내용을 보도함.
 - 대변인은 해당 시험발사는 북한의 중장기적인 국방과학 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주변국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호도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매우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
 -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예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었으므로 미국은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동일한 무기체계를 북한이 개발·시험한다고 하여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고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진정성에 의혹만 더해줄 뿐이라고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명호 외무성 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10.23.)**

- 10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대만 관련 움직임에 대한 박명호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보도함.
 - 최근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각종 군함들을 대만해협에 수시로 파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국의 ‘불가분리의 영토’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
 -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을 대중국 압박도구이자 유사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용하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비난
 - 북한은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며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의 행위는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이자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대답 (조선중앙통신, 2021.10.26.)**

- 10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총회 제76차 회의에서의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언에 대해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진행한 문답을 보도함.
 - 대변인은 특별보고관이 ‘제도적인 인권 유린’, ‘표현의 자유 탄압’ 등과 같은 망발을 늘어놓으며 북한을 악랄하게 비방증상하였고, 북한이 스스로의 실정에 맞게 취한 코로나19 관련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방역조치까지 문제 삼았다고 비난
 - 북한은 인민의 생명안전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누구에게도 이를 걱정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 특별보고관의 망언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인권유린의 왕조’인 미국이 인권옹호자로 둔갑해 인권문제를 내정간섭의 도구로 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경고

※ 알려두기 ※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